

“강진·부안 고려청자를 한자리서 만난다”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개최...4일·25일 학술강연회도

“강진과 부안의 고려청자를 한자리에서 만난다.”

전남 강진과 전북 부안은 고려시대 시인이유보(1168~1241)가 ‘하늘의 조화’라고 평한 고려청자 중에서도 으뜸가는 명품이 만들어진 고장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고려시대 자기소(磁器所)가 있던 곳이라고 기록된 강진과 일제강점기에 가마터 유적이 발견된 부안은 왕실에 납품한 도자기 생산지로 알려졌다.

국립전주박물관은 고려 건국 1천100주

년과 전라도 정도(定道) 1천년을 맞아 고려시대 물질문화의 정수인 청자를 조명하는 특별전 ‘고려청자의 정점을 만나다-부안청자·강진청자’를 11월 25일까지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국보 제60호 ‘청자 사자모양 향로’를 비롯해 ‘청자 구름 학무늬 매병’, ‘소나무 인물무늬 매병’, ‘청자 참외모양 주자’ 등 유물 600여 점이 나왔다.

전시는 ‘고려 대표 명품, 청자’, ‘청자 생산의 중심, 전라도’, ‘고려청자의 정점을 만나다, 부안 청자와 강진 청자’, ‘비닷길



부안 유천리 출토 물가풍경무늬 자기 조각.

에서 만난 청자, 어디로 가고 있었나’ 등 4부로 구성된다.

박물관은 다양한 고려청자를 선보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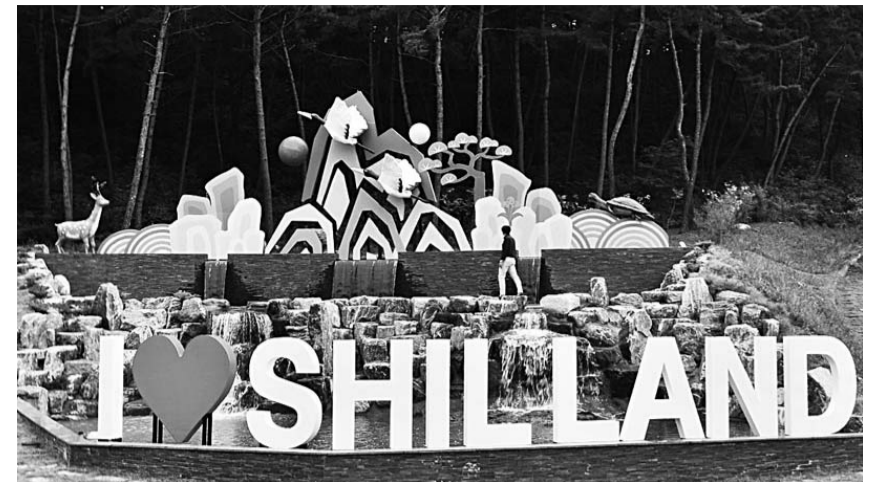
것은 물론 강진 청자와 부안 청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꾸민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부안 유천리 가마터와 강진 사당리 가마터에서 이뤄진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청자 조각을 공개하고, 그 형태와 문양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전주박물관 관계자는 “회화와 달리 청자는 생산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부안 청자와 강진 청자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의 특색이 있다”고 말했다.

전주박물관은 특별전과 연계해 오는 4일과 25일 학술강연회도 연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군 관광휴양촌 ‘실랜드’ 조성사업 순조

인계면 건강장수연구소 일원 80억 들여 워터공원 등 갖춰

휴식과 치유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전북 순창군 관광휴양촌인 실랜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건강장수연구소 일원에 조성 중인 실(SHIL·Sunchang Health Institute Longevity) 랜드(사진)는 내년까지 80억원이 투자된다.

현재 워터 공원과 무궁화동산 등에 수국, 산수국 등 1300주와 다양한 치유식물을 심고 시냇물, 세죽장을 갖춘 산책로도 조성했다. 최근에는 2억여원을 들여 실랜드 간판, 십장생 조형물, 주변 이정표 정비를 마쳤다.

10월에는 힐링 숙박시설인 방갈로 15

동의 준공을 앞두고 있다. 사계 광장·수변광장 조성, 건강휴양체험시설, 구절초 동산 등도 들어선다.

실랜드 인근에는 현재 건강 장수연구소, 장수체험과학관, 음식문화실습관 등이 운영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노후준비 교육, 당뇨학교, 음식문화 노년교류, 군민 힐링 프로그램 등을 내실화해 실랜드 운영과 접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노후준비를 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은퇴자 심화 교육을 진행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

익산시 미세먼지 신호등·경관조명 시내권 설치

익산시는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신호등 10개와 경관조명 1개를 시내권에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유동인구가 많은 배산공원, 모현공원, 영등시민공원, 영등근린공원, 익산역, 공설운동장, 예술의전당, 이리초등학교, 부소초등학교, 영등초등학교에 설치했다.

신호등은 주변에서 측정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전송받아 수시로 보여준다.

더불어 농도에 따라 파란색(좋음), 초록색(보통), 노란색(나쁨), 빨간색(매우 나쁨) 중 하나의 신호등이 점등한다. 경관조명은 중앙체육공원 운동장 전막에 설치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한다. /익산=유영경 기자 yjy@

고창군 체육시설 사업 3곳 216억원 투입

다목적체육관 등 시설확충 주력

고창군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일과 삶의 균형, 주 52시간 근무제 확산 등으로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민의 체육시설 접근성 증진을 위한 시설 구축에 나선다. 군은 이 같은 시대 변화에 따라 고창스포츠타운과 상하체육테마공원 조성, 산림편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고창스포츠타운은 총 사업비 149억원이 투입돼 7만8536㎡ 규모로 생활체육장, 생활야구장 인근에 조성된다.

총 사업비 32억원이 투입되는 상하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상하 실내체육관 인근에 파크골프장, 다목적구장, 광장(무대), 야외운동기구, 산책로, 조경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총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 산림중학교 인근에 체육관과 작은목욕탕, 사무실, 회의실, 편의시설(화장실·샤워실) 등이 들어서는 산림편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업별 실시계획을 완료한 후 오는 2019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지난 29일 열린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개관식에서 이환주 남원시장 등 관계자들이 개관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개관...3층 규모 북카페 등 갖춰

정읍 ‘연지아트홀 걸어가는 길’ 간판 개선사업 속도

정읍역사거리까지 총연장 750m...디자인개발 용역 최종보고회

정읍시가 ‘연지아트홀 걸어가는 길’ 간판 개선사업에 속도를 올린다.

정읍시는 지난 28일 간판개선사업 디자인개발 용역 최종보고회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유진섭 시장의 주재로 열린 최종보고회에는 관련 전문가, 점포주 대표, 업무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해 각 점포별 간판 최종시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간판개선사업은 정읍역사거리에서 연지아트홀까지 총 750m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중 정읍역사거리에서 정읍터미널에 이르는 210m 구간은 2016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간판 정비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2017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4억4400만원을 투입, 정

읍터미널에서 연지아트홀까지 이르는 잔여구간(540m)의 100여개의 간판을 정비한다.

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도시재생대학 교육을 통해 연지상가 상인들의 역량강화와 자생력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옥외광고물 시범구역 지정과 함께 10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점포주들의 동의서 청구, 개별면담,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컨설팅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점포주들의 의견이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시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이 지난달 28일 문을 열었다.

수련관은 60억원이 투입돼 옛 남원시청 부지에 지상 3층, 전체 건물면적 2648㎡ 규모로 건립됐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쉬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북카페, 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 요리교실, VR(가상현실) 체험실, 체

육관 등을 갖췄다.

청소년의 고민과 진로에 대해 상담해줄 상담복지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도 입주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올해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5명 선정

전북도는 올해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로 경제와 체육, 나눔 등 5개 분야에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제 대상에는 조영호(완주한우협동조합 이사장), 체육대상에 전영술(전북검도회 수석지도사), 농림수산대상에 신동화(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 나눔대상에 최병철(김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근로대상에 김연순(여·주자연 생산반장)

씨다.

수상자들은 오는 18일 전라감영 부지내 특별무대에서 열리는 ‘전라도 천년 기념식 행사장’에서 상패와 메달을 받는다.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한 전북인을 찾아 시상하는 상으로 올해 23년째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